

강기정 ‘군공항·복합쇼핑몰·반도체’ 건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만나 3대 지역 현안 협조 요청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3대 현안 과제 해결을 건의했다.
 강 당선인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 정무수석과 면담하고 ▲국가 주도 군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유치 시 국가 SOC 지원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선정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강 당선인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역할을 요청한 뒤 “광주와 대구공항 이전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국가 SOC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모든 지자체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은 상생을 위해 300만 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았다”며 “정부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기에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정무수석은 “윤석열 정부도 광주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의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고, 복합쇼핑몰의 경우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으로, 광주시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헌법전문 수록 내용이 빠진 것은 국회 입법 사항이라 담지 않았을 뿐, 대통령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공약도 했고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신임 광주경찰청장 임용환·전남경찰청장 이충호 “신뢰받는 시민 경찰”... “안전 넘어, 안심 주는 경찰”



광주경찰청장 임용환(왼쪽)·전남경찰청장 이충호.

두 신임 청장은 업무 추진력과 치안 정책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2일 오전 신임 임용환(58·경찰대 3기) 광주경찰청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민의 경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시민의 아픈 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찰은 주민 안전을 넘어 안심을 주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경찰은 빈틈없는 선거와 누리호 발사 지원활동을 했으며 상반기 총 범죄·4대 범죄 3.8%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21.7% 감소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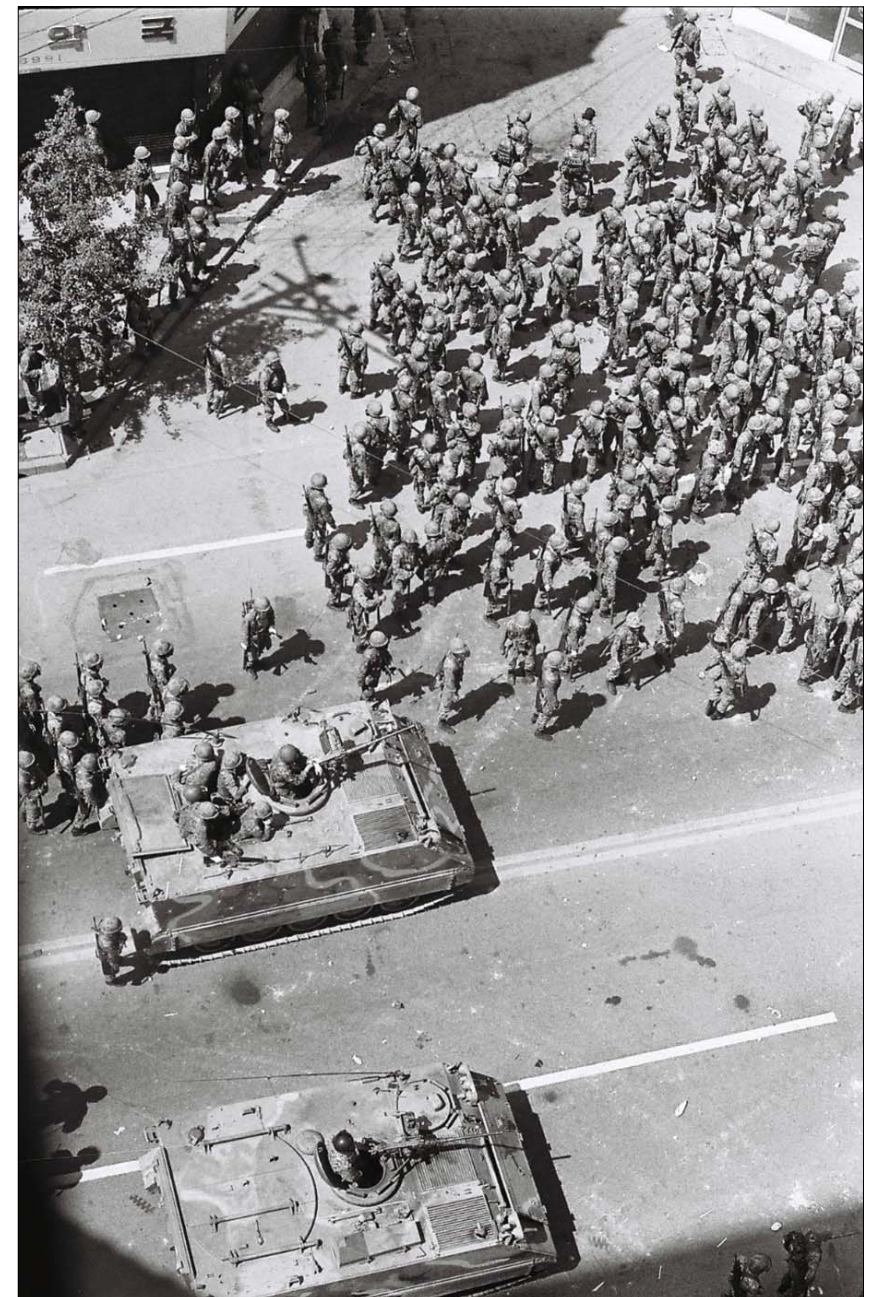
| | |
|----------------------|--|
| 호남권 철도사업 4625억 투입 2면 | |
| 尹 탈원전 공식 폐기 선언 3면 | |
| 가계·기업 빚 3400조 4면 | |

5·18 집단발포 직전 계엄군 사진 공개

“당시 장갑차 상단에 12.7mm 실탄 장착한 기관총” 5·18조사위, 1980년 5월21일 사진 3600점 수증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기관총을 이용, 시민들을 쏜 병백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추가로 발견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22일 광주일보로부터 1980년 5월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촬영된 사진 3600여 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사진 가운데는 태극기에 둘러싸인 시민이 픽업 트럭에 실려 있는 모습을 비롯해 금남로 4가 교차로에 쓰러져있는 사람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중 기관총이 설치된 케도형 장갑차(M113)를 운전하는 계엄군의 사진을 통해 그동안 여러차례 입증된 바 있는 계엄군의 기관총 발포 사실이 추가 뒷받침됐다.
 사진 촬영 시점은 금남로에서 광주 시민을 향한 집단 발포가 이뤄진 1980년 5월 21일이다. 집단 발포 약 2~3시간 전인 오전 10시~11시경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 배치된 장갑차와 계엄군을 촬영한 것이다.
 특히 사진 속 장갑차 상부에는 12.7mm 실탄이 결합된 기관총이 장착돼 있어 이후 실제 사격으로 이어진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조사위는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면이 촬영된 또 다른 사진을 입수한 바 있다.
 조사위는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당시 이뤄진 기관총 사격 사실의 교차 검증에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당시 11공수여단 62대

대 소속 김모 하사의 “캘리버 50을(장갑차에) 걸어 놓고, 실탄도 걸어 놓았다”는 진술과 같은 대대 김모 일병의 “APC에서 캘리버 50을 쏘았다. 시내에서 쏘니까 소리가 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과거 기록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기관총 발포 사실이 명백하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조사위는 1995년 검찰 조사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소속 김모 장군이 남긴 ‘5월 21일 오후 시위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소대장이 장갑차의 해치를 열고 기관총 사격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위대가 장갑차로 덤벼들자 놀란 소대장이 영검결에 손잡이를 잡아당겨 수 발이 발사됐다’는 진술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전투원 신문부는 ‘5월 21일 오후 1시 이전에는 실탄이 배분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차량 돌진 공격 이후 계엄군 측의 사상자가 나오게 돼 철수하는 31사단 병력으로부터 실탄을 교부받아 발포했다’는 식의 자위권 발동 논리를 펼쳐왔다.
 그러나 집단발포 2~3시간 전에 촬영된 장갑차 위 기관총에 결합된 실탄의 모습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조사위는 이번 사진들이 당시 발포 상황의 진상규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폐·조작 사건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이번에 기증받은 사진들은 모두 지금까지 일반에



사진은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11시 사이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 배치된 계엄군들과 실탄이 결합된 기관총이 설치된 장갑차의 모습.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공개되지 않은 것들로 사망 또는 피격 당시 피해자 조사에 깊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 “접촉자 없어” 지난 21일 독일서 입국 후 자진신고

국내에서 처음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했다.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으로, 자발적으로 방역 당국에 의심증상을 신고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명을 진단검사한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전남 오후 4시경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이다. 입국 전인 지난 18일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 37도의 미열,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 병변을 보였다. 확진자는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를 했고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이후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질병청은 “현재 환자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급일 발열증상이 조금 나타나 해열제 처방 등 대응요법을 중심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형 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D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입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 | |
|-------------------|-------------------|
| 타입1. 컨테이너 3X6 | 타입2. 컨테이너 3X9 |
| 타입3. 농막 3X6 | 타입4. 농막 3X9 |
| 타입5. 휴먼버스 | 맞춤제작 |

☎ 010-6265-0057